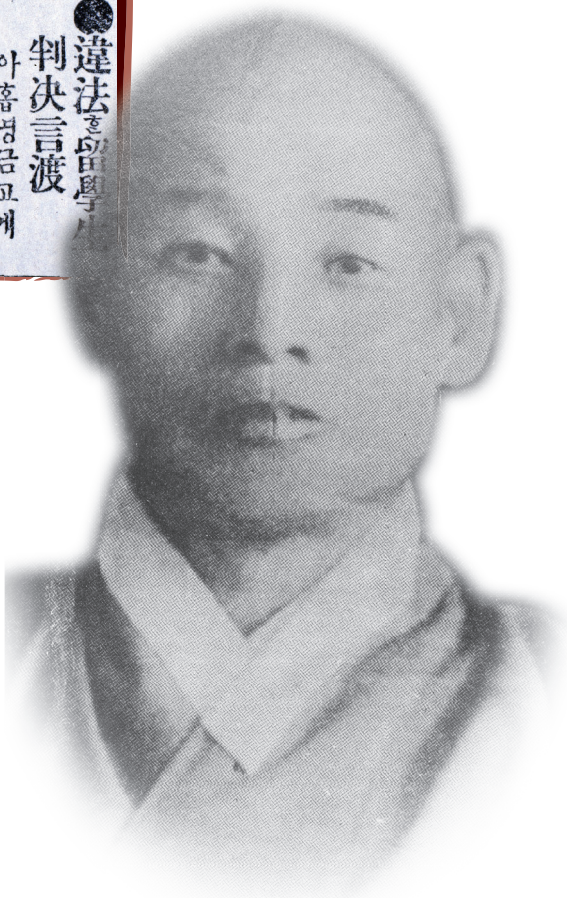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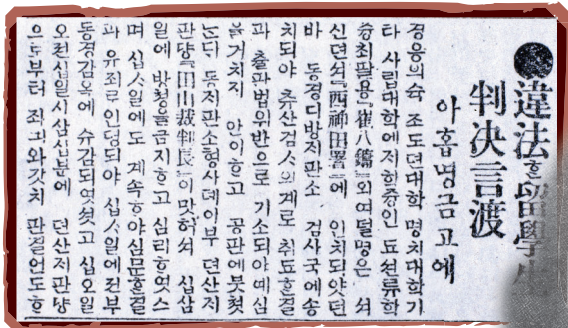


독립정신

43호 2009년 1·2월호



이 달의 독립운동
2.8 독립선언
 이 달의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특별기획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독립정신
사진으로 보는



이시우 | 사진작가

드의 반대편을 가슴이라고 하듯이 손등의 반대편은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슴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가슴은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기에 가슴입니다.

손은 그저 쥐는 것이 아니라 손가슴으로 만물을 끌어안는 것이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끌어안은 만큼 손가슴은 세상을 창조합니다. 발은 그저 걷는 것이 아니라 발가슴으로 대지를 끌어안는 것이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끌어안은 만큼 발가슴은 땅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때로 가슴이 세상을 끌어안기에 벽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찬 세상을 끌어안으려 할 때 가슴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눈가슴에선 눈물이, 손가슴과 발가슴에선 땀이 흐릅니다.

당신과 처음 만나 악수를 하던 날 나는 그만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약지 한마디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상상 끝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는 당신의 말을 듣고, 그 손가락은 당신 스스로 자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벅찬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 흘렸을 눈물과 핏물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러시아의 변방 연추에서 만난 단지동맹비 앞에서 나는 내내 당신의 잘린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군대도 조직도 모두 여의치 않아진 상황에서 벽찬 역사를 끌어안아야 했던 안중근과 11명 청년들의 손가슴에서 흐르던 피눈물이 100년 뒤 당신의 손가슴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찰찰함을 아는 듯 구름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피눈물로 끌어안았던 역사에서 안중근은 불꽃이 되었습니다. 고개들어보니 단지동맹비의 핏방울은 촛불의 불꽃이기도 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찬란한 불꽃이 아닌 모든 어둠을 끌어안아 버릴 것 같은 검은 불꽃 말입니다.

— 시로 읽는 독립정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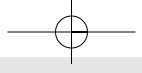
님의 沈默

작자 : 萬海 韓 龍 雲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글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찢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었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칩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힘싸고 돕니다

해설 : 충남 홍성군 서부면 용호리에서 출생하여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중풍으로 병사한 작자는 시인, 승려인 동시에 31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의 한 분이다. 이 시의 님은 이별을 통해서 자율적 투쟁의 시초가 되는 최초의 님이기도 하고 침묵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각하여 목숨을 걸고라도 쟁취 실현시키고자 하는 민족의 자유 평등 독립 그것일 수도 있다.

홍일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2009 1*2

통권 43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새해를 맞이하며 | 김자동

07 이달의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민족의 혼을 일깨운 선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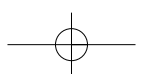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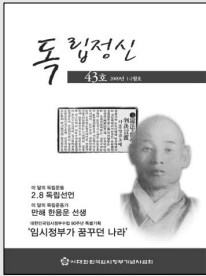
13 이달의 독립운동 2·8 독립선언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3·1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17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 | 박태균
大韓民國綱領



28 청년특집 타임머신을 타고 선열들과 만나다(1)
백범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정의 조수정





표지사진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준수, 김지용, 신명식, 이찬희, 이재승, 김동완
학생편집위원 | 조영빈, 정승임, 홍용희, 인솔지, 조수정, 조정의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TEL : (02)3210-0411, 732-2871~2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2 교단에 서서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개악을
바라보며 | 김태우



36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마이클콜린스〉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 이두희



40 독립정신 산행기
10월, 유정이의 북한산 산행기
| 김유정

42 독립정신 이모저모



46 만평 | 김동완

47 임정서가
박건웅, 딸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 아버지
| 박익란

■ 권두언

새해를
같이 힘써
가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2008년은 참으로 답답한 1년이 되고 말았다. 요즘 미국에서 앞으로 출발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상당한 듯하다. 1년 전 우리 국민은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하여 그보다 더 큰 기대에 부풀려 있었다. 7+4+7(경제성장7%, 1인당 평균소득 4만 달러, 세계 제 7위의 경제대국)이란 수치에 국민은 여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미국에서 시발된 경제 위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을 어느정도 이해한다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바마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한미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에 대하여 이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때야 무슨 말인들 못할것인가?”라고 말했다는 신문보도를 접했다. 선거때에는 거짓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도 들려져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성실성이 없이는 어떻게 정부를 믿고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선거는 지나갔지만 거짓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4대강 개발 등 토목공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이것을 ‘한국식의 뉴딜 정책이다’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하여 뉴딜정책을 실천한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토목공사도 진행됐다. 그러나 그 공사들은 전부 필요한 것들 이었지 단순히 토목공사를 통하여 건축경기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뉴딜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극빈자·노약자들의 구제 등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노동자의 지위향상과 노동조합의 활성화를 도왔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국민은 한 덩어리가 돼야 하며 특히 노사의 화합이 긴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은 반노동적이라고 보여지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대통령은 처음부터 친기업적임을 표방했다. 친기업이 반드시 반노동적일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업가들 중에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하여는 노동착취도 불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흔히 이런 사람들을 악덕기업가라고 부른다. 현 정부의 친기업이란 친 악덕기업을 뜻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1930년의 대공황이 제대로 끝난 것은 유럽에서의 전쟁 덕을 보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경기회복의 긴 세월동안 미 국민에게 희망을 준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의 화합을 이룩했기 때문이다.

1932년에 루스벨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시기에 미국에서는 사회당뿐만 아니라 공산당 같은 급진세력이 급성장하고 있었다. 루스벨트 재임기에 미국공산당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것은 국가 보안법등 반공탄압으로서 이룩된 것이 아니다. 경제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의 전진적인 시책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이 한국식의 뉴딜이라는 역사를 부리지 말고 루스벨트식의 뉴딜정책을 본받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역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 아쉬워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상황을 살피고 여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친 부유층 일변도의 노선이 걱정 되는 것이다. 경제 문제와는 별도로 정부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시책에 대하여 짚어보면 크게 걱정이 된다.

이른바 뉴라이트 집단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 제기한 교과서 문제도 그렇거니와 특히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무시한 이른바 '건국기념일' 문제는 참으로 한심스럽게 생각된다. 현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정부를 반미적 좌파라고 매도하며 스스로를 가장 친미적인 존재라고 내세우며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나라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영원한 우방도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옳은 것이며 더구나 동맹국과의 친교를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가사이의 관계를 떠나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좋은 점과 잘한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뉴딜에서 배울 것이 많을 것으로 믿어진다. 진실성을 갖고 뉴딜정책을 공부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권두언

한편 ‘건국’을 논의하는 데도 미국의 선례는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 독립전쟁은 1773년의 보스턴 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식민지 대표자들은 1774년에 이어 1775~76년에 제 2차 대륙회의를 열었으며 1776년 7월 4일에는 ‘독립선언’을 공포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7년이 지난 1783년에야 비로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게 되었다. 그리고도 1787년에야 제헌회의라고 불리는 필라델피아회의가 개최된다. 여기서 헌법이 제정되고 1789년에야 비로소 연방정부가 세워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건국기념일이라는 것이 없다. 1989년 4월 30일이 연방정부의 수립일이지만 이 사실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기념일로 되어 있지 않다.

2009년 정부에 바란다

1948년 5·10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회가 당시 제정된 헌법은 그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후략)”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1987년의 개정 헌법은 “대한민국의 법통 계승”을 거듭 확인했다. 따라서 8·15는 정부재건기념일은 될 수 있어도 ‘건국’은 커녕 정부수립기념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도 독립선언기념일인 3월 1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것도 진지한 토론을 거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8·15는 그동안 해 온대로 ‘광복절’로 기념하면 될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여 정부는 의회의 절대다수를 믿고 국민의 감정과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더구나 일제의 침략을 미화하는 민족의식이 없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뜻만을 따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난국을 타파하는데는 어려운 다수에 대한 배려와 관용과 화합의 정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성실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정자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민족의 혼을 일깨운

선각자

일제 치하에서는 조선 전체가 감옥이라고 생각한 선생은
추운 겨울날씨에 불도 지피지 않은 심우장 냉돌위에 꼳꼳이 앉아 상념에 잠기곤 하였다.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저항시인이요, 소설가요, 독립투사이며 여성운동가였던 만해 선생은
1944년 6월 29일 그토록 그리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입적하고 말았다.
장례는 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하였으며, 유해는 망우리묘지에 안장되었다.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한응준(韓應俊)과 온양 방씨(溫陽方氏)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청주이며 자(字)는 정옥(貞玉), 속명은 유천(裕天), 득도 당시의 계명(戒名)은 봉완(奉玩), 법명(法名)은 용운(龍雲), 법호(法號)는 만해(萬海)이다.

9세대 통감(通鑑), 서경(書經) 등을 수학하고 14세에 천안전씨(天安全氏, 貞淑)와 혼인하였다. 이후 그는 동리 서당의 훈장으로 학동을 가르치는 한편 부친으로부터 때때로 의인(義人)들의 기개와 사상을 전해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

향리에서 한학공부에 정진하던 선생은 기울어 가는 국운과 국가멸망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때 동학혁명에 가담하였다가 만주, 간도 등지를 다니며 광복운동(光復運動)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인생에 대한 성찰로 인하여 길을 바꾸어 설악산, 백담사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서 양계초(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서계여의 『영환지략』(瀛環志略) 등을 통하여 무릇 인간은 자유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 이달의 독립운동가 |



▲ 만해 한용운 유묵 '수지단심'

‘일제에 불심을 팔지 말라’

1913년 선생은 당시 모순과 부패가 만연하던 한국불교의 상황을 개탄하고 당면과제를 지적하여 자유평등주의사상에 입각, 개혁안을 제시한 실천적 지침서인 『조선불교유신론』(朝鮮佛敎維新論)을 탈고하여 불교서관에서 발행함으로써 불교계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다.

같은 해 10월 친일승려 이회광(李膺光) 일파가 한국의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과의 합병을 발표하자 선생은 이회광 일파의 책동을 정치적 상황에 편승한 친일매불(親日賣佛) 행위로 단정하고 이회광을 중문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박한영(朴漢永), 진진응(陳震應), 김종래(金鍾來) 등과 함께 송광사에서 승려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원종에 대응하는 ‘임제종’(臨濟宗)을 창립하여 송광사에 종무원을 두고 전국에 격문을 돌려 큰 호응을 받기도 하였다.

1914년 4월에는 방대한 고려대장경을 독파하고 『불교대전』을 간행하였으며 1918년에는 본격적인 불교잡지 『유심』(惟心)을 발간하여 그가 추구하는 불교의 대중화 작업뿐만 아니라 암울했던 식민지 무단통치 아래서 막혀 있고 닫혀 있던 민족의 입과 귀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계몽운동의 발판으로 삼았다.

선생은 불교계측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을 맡았다.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을 맡았다.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 사장 이종일로부터 3천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수하여, 중앙학림 학생인 정병헌(鄭秉憲), 오택언(吳澤彦), 전규현(田奎鉉), 신상환(申尙煥), 김법윤(金法允) 등에게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족대표들은 모두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선생은 옥중에서도 의인(義人)답게 태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민족대표들 가운데는 불안과 절망에 빠져 소란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선생은 그들에게 호통을 쳐서
 나약한 민족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

오후 2시 이후에 독립선언서를 시내 일원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선생은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전에 선언서 낭독이후 피체될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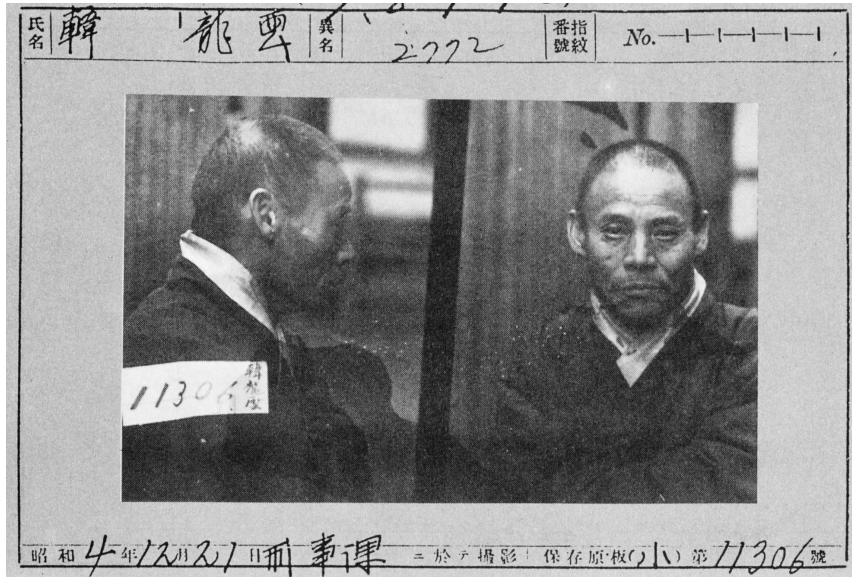
-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 둘째, 사식(私食)을 취하지 말 것.
- 셋째, 보석(保釋)을 요구하지 말 것.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민족대표들은 모두 일경에게 피체되었다.
 선생은 옥중에서도 의인(義人)답게 태연한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민족대표들 가운데는 불안과 절망에 빠져 소란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선생은 그들에게 호통을 쳐서 나약한 민족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다.

“역경을 이겨내야 할 사명을 가진 조선 청년은 행운아”

1919년 7월 10일에는 경성지방법원 검사장의 요구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란 논설을 집필하여 명쾌한 논리로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 이달의 독립운동가 |



▲ 만해 한용운 선생 수형기록표

1921년 12월 21일 석방된 뒤에도 선생의 의지는 변함이 없어 국권회복운동을 계속하였으며, 1924년에는 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회에서는 30본산 주지뿐만 아니라 총독부에 대하여 당당히 정교(政敎)의 분립을 주장하여 사찰령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며, 중앙의 불교 행정기관을 각성시켜 불합리한 법규를 정정하고 사회적 대중적 불교를 건설하기에 전력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선생의 청년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면이 있어, 『유심』, 『조선일보』, 『대중공론』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지금 조선에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고 심리적 수양이 이뤄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로(前路)에 목표를 설정하여 매진할 수 있는 젊은이를 길러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당시의 조선청년을 시대적 행운아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상황이 역경이기 때문에 조선청년은 후세 자손들에게 행복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려 현실을 개척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코 회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임을 일깨워주는 역설적인 표현이었다.

1930년 5월에는 김법린(金法麟), 최범술(崔凡述), 김상호(金尙昊) 등 20여 명의 청년 불교도들이 비밀리에 조직한 항일운동단체인 만당의 당수로 취임하였다.

만당은 경상남도 사천(泗川)의 다솔사(多率寺)를 근거지로 하여 국내일원과 동경에까지 지부를 설치하

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민족의 자주독립이었으나 1938년 말 일경에게 발각되어 서울, 사천, 진주, 해남, 양산 등지에서 6차례의 검거선봉으로 말미암아 와해되고 말았다.

또한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민중계몽을 위하여 일간신문의 발행을 구상, 당시 운영난에 빠진 『시대일보』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31년 잡지 『불교』를 인수하여 속간하면서 불교 대중화와 민중계몽, 민족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

1927년 2월 15일 좌우합작의 민족유일당 운동인 신간회(新幹會)가 중앙기독교총년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자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6월 10일 경성지회장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 만해 한용운 선생

문학으로 펼친 독립의 뜻

한국문학사에 있어서는 근대적 시인이요, 3.1운동세대가 낳은 최대의 저항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선생은 1926년에 발간한 『님의 침묵』속에 시조와 한시를 포함해서 모두 300여 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다.

소설로는 「죽음」외에 「흑풍」(黑風)(1935, 조선일보 연재), 「후회」(1936, 조선, 중앙일보 연재하다가 중단), 「철혈미인」(鐵血美人)(1937, 『불교』 신1, 2집에 연재), 「박명」(薄命)(1938, 조선일보 연재) 등이 있다.

문학세계에 있어서 시나 소설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선생의 시 세계에 있어서 「님」은 연구자에 따라서 조국, 민족불타, 중생 등 다양한 형태로 해석되고 있으며 선생의 삶과 행적을 살펴보면 문학은 그것이 시든 소설이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일제치하라는 암울한 당대의 현실에서 한계에 부딪혀 적절한 표현 대신에 문학이란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갈구하는 자신의 심중을 은유적 수법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생은 <독자에게>라는 시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으며, 소설 「흑풍」이 『조선일보』에 연재될 때 작자의 말에서는 “변변치 못한 글을 드리는 것은 미안하오나 이 기회에 여러분과 친하게 되는 것은 한없이 즐거운 일입니다. 많은 결점과 단처를 다 둘러 보시고 글 속에 숨은 나의 마음씨까지 읽어주신다면 다행

| 이달의 독립운동가 |

히 없겠습니다.”라고 마음속의 뜻을 독자가 헤아려 주기를 원했다.

동북향으로 터 잡은 심우장에서 입적하다

1933년 55세 되던 해 벽산(碧山) 스님이 기증한 지금의 성북동 집터에 방응모(方應模), 박광(朴洸) 등의 후원을 받아 심우장(尋牛莊)이 택호의 집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여기서 여생을 보냈다. 집을 지을 때 선생을 돕던 인사들이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별이 잘드는 남향으로 터를 잡을 것을 중용하였으나 마주보이는 총독부 청사가 보기 싫다고 하여 끝내 동북방향으로 집을 틀어 버리고 말았다.

교우관계에 있어서 좋고 그름(好惡)이 분명하여 뜻을 함께한 동지들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의리를 보여 주었다.

만주에서 대한통의부 총장을 역임하여 독립투쟁을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마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루던 일송(一松) 김동삼(金東三)이 옥중 순국하였을 때에는 자진해서 유해를 심우장에 모시고 5일장을 치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절한 친일인사에 대해서는 설령 친분이 두터웠거나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더라도 단호히 절교하고 일체 상대하지 않았다. 3.1운동 당시 동지였던 최린(崔麟)이 변절, 창씨개명을 하고 심우장을 방문하였으나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무안해진 최린이 선생의 딸에게 돈을 쥐어주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선생은 부인과 딸에게 호통을 치고 그길로 명륜동 최린의 집으로 달려가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되돌아 왔다고 한다.

일제 치하에서는 조선 전체가 감옥이라고 생각한 선생은 추운 겨울날씨에 불도 지피지 않은 심우장 냉 돌위에 꿏꿏이 앉아 상념에 잠기곤 하였다.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저항시인이요, 소설가요, 독립투사이며 여성운동가였던 만해 선생은 1944년 6월 29일 그토록 그리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입적하고 말았다. 장례는 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화장하였으며, 유해는 망우리묘지에 안장되었다. ㉔

※ 국가보훈처의 글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 사진 제공 : 독립기념관



▲ 28독립운동가 출옥기념

동경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3·1운동의 도화선이 되다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 일명 조선청년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셋이다.
첫째 1918년 11월에 만주·노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 <2·8독립선언서>,
셋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이다.
2·8독립선언서는 학생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 이달의 독립운동 |

1919년 2월 8일 동경 유학생들이 발표한 독립선언. 일명 조선청년독립선언이라고도 한다. 3·1운동 전후에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모두 셋이다. 첫째 1918년 11월에 만주·노령에서 발표한 〈무오독립선언서〉, 둘째 〈2·8독립선언서〉, 셋째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발표된 〈3·1독립선언서〉이다. 〈2·8독립선언서〉는 학생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과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동경유학생들은 이미 한말 때부터 대한흥학회를 조직하고, 학회지 《대한흥학보》를 간행하여 국내에 배포하는 등 애국화운동에 기여하였으며, 1910년 망국 이후에는 조선유학생학우회·조선기독교청년회·조선학회·조선여자친목회 등 자치단체를 조직하여 회원의 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특히 조선유학생학우회는 1912년 10월에 조직되어 동경유학생 전원이 자동 가입되었으며, 회지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는 한편, 웅변·토론·강연·졸업생축하회·신입생환영회 등의 모임을 열어 회원의 애국사상을 고취하여왔다.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

재일유학생들이 한국의 독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부터라고 하겠으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자극은 1918년 1월 종전을 앞두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평화원칙 14조와 그 해 11월에 성립된 제1차세계대전의 휴전조약으로부터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학생들에게 고무적이던 보도는 1918년 12월 15일자 《저팬 애드버타이저 The Japan Advertiser》(神戶에서 영국인이 발간한 영자지)에, 〈한국인, 독립을 주장 Korea, Agitate for Independence〉이라는 제하에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기사와, 12월 18일자 〈약소민족들 발언권 인정을 요구〉

라는 기사에서 뉴욕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동맹회의 2차연례총회가 파리강화회의 및 국제연맹에서 약소민족의 발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보도였으며, 아울러 한국대표가 이에 포함된 사실까지 알려주었다. 이 보도에 접한 재일유학생들은 1919년 1월 6일 동경 간다(神田)에 있는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회를 열어 “오늘의 정세는 우리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에 가장 적당한 시기이며, 해외의 동포들도 이미 실행운동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구체적 운동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결의하고 실행위원으로 최팔용·서춘·백관수·이종근·송계백·김도연 등 10명을 선출하였다. 실행위원들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이를 일본정부가 각국 대사공사 그리고 일본 귀족원·중의원 양의원에 보내기로 결의하고 1월 7일 청년회관에서 회원 약 200명을 모아 실행위원의 결의사항

을 보고하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 실행위원 중 전영택이 신병으로 사퇴하자 북경으로부터 서울을 거쳐 동경으로 온 이광수·김철수를 새로 추가하여 11명의 실행위원이 먼저 조선청년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기초위원으로는 백관수·김도연·이광수를 선출하였으나, 실제 문안작성은 이광수가 전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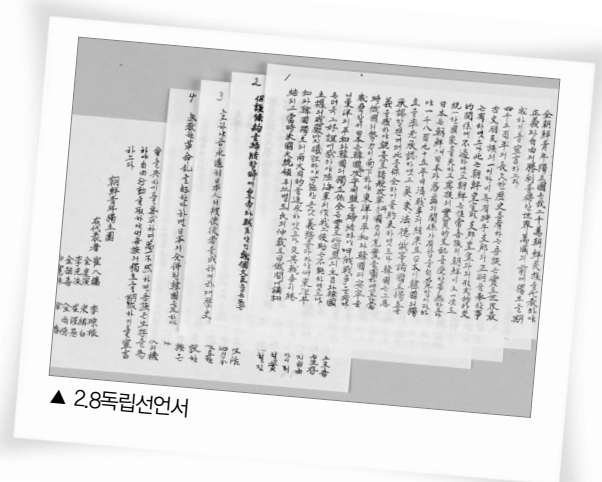
역사적인 2·8독립선언서의 탄생

완성된 선언서 초안 한 부는 송계백과 최근우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되었고, 중앙학교 현상윤·송진우·최남선·최린 등이 이를 받아보고 흥분하였다는 것이다. 최팔용은 1919년 2월 7일 일문으로 된 <민족대회소집 청원서>를 동경 시바구(芝區) 고야마정(小山町)에 있는 이토인쇄소에서 1,000부를 인쇄하고, <독립선언서 부(附)결의문>은 국문·일문·영문이 있었으므로 7일밤 김의술 집에서 국문·일문을 등사판으로 밀고 영문은 타자를 쳐서 이튿날 아침 10시 이틀 청원서와 선언서를 먼저 우편으로 동경주재 각국 대사관·공사관과 일본정부의 각 대신, 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 및 각 신문사로 보내고, 오후2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유학생대회를 열었다. 그리하여 600여 회원의 환호 속에 역사적인 <2·8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동경유학생의 거의 전원이 모인 이날의 독립선언회에서 유학생들은 독립실행방법을 토의하려 하였으나 관할 니시간다(西神田) 경찰서장이 강제해산을 명령하여 실행위원 10명이 붙잡혔다. 그러나 이광

수는 이미 1월에 중국으로 떠난 상태였다. 2월 12일 유학생 1000여명이 다시 히비야공원에 모여 이달(李達)을 회장으로 추대하고 <독립선언서>를 재차 발표하려 하였으나 이달 등 13명이 붙잡혀 해산되고 말았다. 23일에는 또 변희용·최재우·장인환 등 5명이 조선청년독립단 민족대회촉진부 취지서를 인쇄하여 역시 히비야공원에 배포하고 시위운동을 벌이려 하였으나 배포 도중에 붙잡혔다. 3·1운동이 일어난 뒤에는 조선독립단 동맹후학촉진부가 결성되어 유학생들이 동맹후학운동을 벌였으며, 고국으로 돌아가 3·1운동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았다. 일제의 통계에 따르면, 1919년 2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재일유학생 359명이 귀국하였다는 것이며, 그 중 127명이 서울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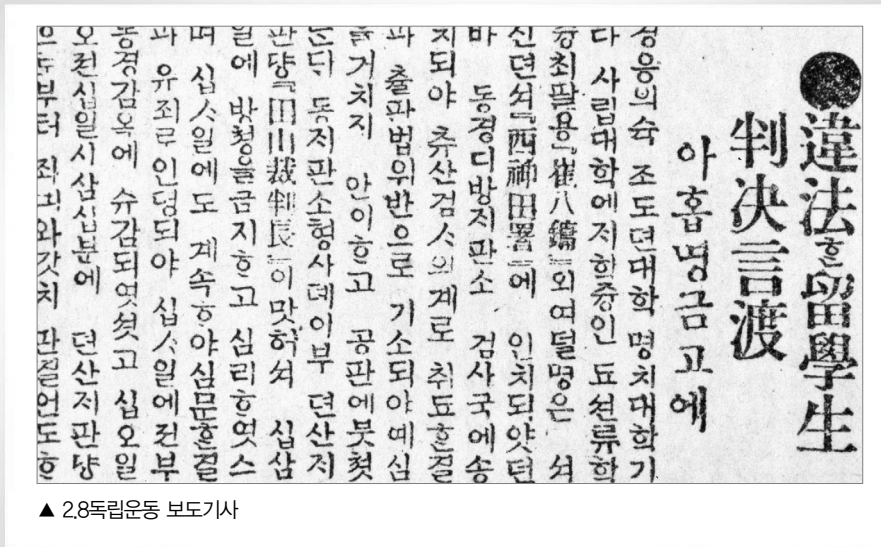
3.1독립선언서보다 더 강한 외침

젊은 동경유학생들이 기초하여 발표한 <2·8독



▲ 2.8독립선언서

| 이달의 독립운동 |



▲ 28독립운동 보도기사

립선언서)는 먼저 일제침략행위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병합이 민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제의 군국주의적 야심의 사기와 폭력이었다고 규탄하였다. 이어 식민지정책의 야만적 성격을 폭로하였고, 일제와 열강은 마땅히 동양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선언문은 두 가지 점에서 <3·1독립선언서>보다 의미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다. 첫째, 이 선언서는 최남선이 <3·1독립선언서>를 기초할 때 참고한 문헌이었다는 점이다. 최남선은 이광수의 문장을 한층 다듬었으나 그 문맥은 같은 것이며 “되도록 온건하게 쓰라.”는 손병희의 지시에 따라 2·8선언서의 과격한 표현을 대폭 연화시킨 흔적을 드러냈다. 특히 선언서 말미의 결의문 4항을 공약 3장으로 바꾼 최남선은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배타적 감정을 삼가라.”고 주장하였다. 결의문을 건의

문으로 변조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독립을 요구한다는 <2·8독립선언서>의 강력한 의사표시가 부드럽게 표현된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2·8독립선언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지만, 만일 이로써 성공하지 못하면 온갖 자유행동을 취하여 최후의 일인까지 열혈을 흘릴 것이며, 영원한 혈전을 불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3·1독립선언서>에서는 단 한마디도 피의 전쟁을 언급한 일이 없으며 공약 3장 2에서, 다만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2·8독립선언에서는 무단통치하에서 신음하는 2천만 민족의 고통과 강렬한 독립요구를 한층 더 절실하게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㉔

※ 달구넷(www.dalgu.net)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사진 제공 : 독립기념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 한국학센터 소장
국제대학원 교수



현재 금융위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국경을 낮추고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고전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의 주장이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의 '불문율' 처럼 작동하였지만, 이제 그 '불문율' 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발전에는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시장만능주의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서구에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케인즈의 '보이는 손' 이 있었고, 동양에서도 서구의 제도에 동양의 제도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1960년대 이후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나타났던 급속한 경제성장 역시 국가의 '보이는 손' 의 역할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만능주의적인 자본주의적 발전과는 다른 제3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다. 1940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헌법' 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정신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

제5조 대한민국 국민은 좌기각항정책의 확립에 의하여 생활균등권을 향유함

1. 국민의 기본생활을 확보할 계획경제의 수립
2. 주요한 생활필수품의 통제관리와 합리적 물가정책의 수립
3. 세제의 정리와 누진율의 강화
4. 토지사유의 제한과 농민본위의 경작권확립
5. 대규모의 주요공업 및 광업의 국영 또는 국가관리
6.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제의 확립
7. 공장의 경영, 관리의 노동자대표 참여
8. 봉급자의 생활을 안정하기 위한 가족급여제의 확립
9. 중요공장 내에 보건, 위생, 교육 및 오락시설의 완비
10. 실업 보험, 질병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이상과 같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조항은 자본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공공을 위한 공적 소유개념이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산업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국가의 통제, 그리고 공장의 경영·관리에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경제구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제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시장 중심의 경제운영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고려하는 ‘공공성(公共性)’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공공성’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는가? 여기에는 국가사회주의, 또는 국가자본주의적 성향을 갖는 쑨원주의(孫文主義)에 바탕을 둔 중국 국민당으로부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의 고래로부터의 전통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데올로기로서 활동했던 조소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1941년 11월 28일)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균등제도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의 명명한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라” 하였다. (중략)
3.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에 유법을 두었다.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 공분수지법(遵聖祖之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併之弊)”라하니 이는 문란한 사유를 국유로 환원하라는 토지혁명의 일종 선언이라. 우리 민족은 고규와 신법을 태포(泰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

여기에서 조소앙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단순하다. 과거로부터 한국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수립될 국가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사람들이 처음 국가를 세울 때 그 정신자체가 ‘균등’하게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래와 위가 모두 고르게 평등하도록 해서 나라 자체를 태평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한국의 전통은 과거 성인들의 공적으로 분배하는 법을 따라서 사유나 겸병에 의해서 나타나는 폐단을 혁파하는데 두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조소앙의 주장은 국가의 세제의 문란과 사족 지주들의 수탈로 인해서 일반 농민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었던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개혁정신의 틀을 잇고 있다. 당시 실학자들은 고래의 이상적 토지제도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 정전법·여전법 등 공공성에 기초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던 것이다.

조소앙이 기초한 『한국독립당 당강 해설』에 보면 이러한 측면들이 더 잘 드러난다. 그는 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토지구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한국인 특유의 ‘심리적’ 이면서 ‘관습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조소앙은 왕조를 새로 수립하거나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성’에 기초한 개혁이 한국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소앙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내용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이 불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헌헌법 속에는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는 특히 경제조항 속에서 잘 드러난다. 즉,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

| 90주년 기획 특집 |



▲ 조소앙 선생과 선생이 기초한 성명서

서 보장' 하고(86조), '광물 및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 및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 로 하며(87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 으로 한다(8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서 조선은행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자본주의를 수정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지향케 한 것은 적의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자원 내지 자연력의 국유 원칙, 농지개혁의 단행, 중요기업의 국영 내지 공영의 선언 및 경제긴급조치의 모유,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등은 민생경제 내지 균등경제건설에 지향하는 국민의 열망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조선은행 조사부, 「경제연감 1949」 1-14쪽)

정부 또한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주도 하에 물자 수급을 조절하는 계획을 작성하였다. 물자 수급을 위한 계획은 기획처를 통해 입안되었으며, 1949년 4월 17일 '물동 5개년 계획' 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이 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고, 미국 원조 당국의 반대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지만, 국가의 주도 하에 경제운영을 위한 물자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공공성' 을 보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정부 또한 이러한 헌법에 기초하여
 국가의 주도 하에 물자 수급을 조절하는 계획을 작성하였다.
 물자 수급을 위한 계획은 기획처를 통해 입안되었으며,
 1949년 4월 17일 '물동 5개년 계획'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비록 이 계획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고,
 미국 원조 당국의 반대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지만,
 국가의 주도 하에 경제운영을 위한 물자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적 '공공성'을 보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러한 제헌헌법의 내용은 1954년의 개헌 당시 삭제 또는 수정된다. 여기
 에는 자유시장의 논리를 강조했던 미국의 압력이 상당부분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성'의 논리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
 라도 대한민국 사회에 중요한 운영원리로서 계속되었다. 1950년대 부흥부와
 4.19 혁명 이후 민주당 정부 하에서의 건설부,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경제기획원
 으로 이어지는 한국 정부 내의 국가주도 경제계획은 '공공성'의 논리가 한국 사
 회의 담론으로서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역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정신이 모든 측면에서 계속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가
 구성원들을 위한 '공공성'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속에서 지속되었다
 기보다는 국가 중심의 체제에 저항하는 대항담론으로서 조금씩 발전되었다. 즉,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조금씩 반영해 나가는 틀이 되었던
 것이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선택했던 박정희 정부에서도 의료보험제
 도를 도입했던 것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997년의 금융위기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모두 '대한
 민국 임시헌법'이 담고 있는 '공공성'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함으로써 발
 생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의 관리 감독에 의해 생산기구가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공공성’은
 오늘 다시 한 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공공성’을 갖추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체제의 ‘공공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정신이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 내의 주요한 담론으로서 작동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전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스템은 이러한 양 측면에서의 공공성을 점차 사라지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0년대 초 이후 급격히 진행된 금융 자유화 및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그 원인이 되었으며, 현재의 위기는 금융 문제와 함께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 자본,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정신은 또 다시 주목받아야 하며,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IMF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결국 이러한 요구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금융위기를 가져오도록 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국가의 일정한 도덕적 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강조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의 공공성을 강조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통한 개혁은 현재의 금융위기의 성격과 세계적 추세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양 방향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전통, 그리고 전세계적 경제위기의 본질적 원인을 고려할 때 더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의 ‘공공성’은 오늘 다시 한 번 그 빛을 발하고 있다. ㉠



國務委員 李始榮(이시영), 曹成煥(조성환), 趙琬九(조완구), 趙素昂(조소앙),
朴贊翊(박찬익), 車利錫(차리석)

大韓民國 二十三年 十一月 二十八日

大韓民國 建國綱領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

第一章 總綱

一. 우리 나라는 우리 民族이 半萬年來로 共通한 말과 글과 國土와 主權과 經濟와 文化를 가지고 共通한 民族正氣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形成하고 團結한 固定的 集團의 最高組織임.

二. 우리 나라의 建國精神은 三均制度의 歷史的 根據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註1)首尾均平位하면 (註2)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社會各層各級이 智力과 權力과 富力의 享有를 均平하게 하여 國家를 振興하며 太平을 保維하라 함이니 (註3)弘益人間과 (註4)理化世界하자는 우리 民族이 지킬 바 最高公理임.

三. 우리 나라의 土地制度는 國有에 遺法을 두었으니 先賢의 痛論한 바 『(註5)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여 (註6)革後人私有兼併之弊』라 하였다. 이는 紊亂한 私有制度를 國有로 還元하라는 土地革命의 歷史的 宣言이다. 우리 民族은 故規와 新法을 參互하여 土地制度를 國有로 確定할 것임.

四. 우리 나라의 對外主權이 喪失되었을 때에 殉國한 先烈은 우리 民族에게 同心復國할 것을 遺囑하였으니 이른바 (註7)望我同胞는 勿忘國恥하고 堅忍努力하여 同心同德으로 (註8)以捍外侮하여 復我獨立하라』하였다. 이는 前後殉國한 數十萬先烈의 典型的 遺志로서 現在와 將來의 民族正氣를 鼓動함이니 우리 民族의 老小男女가 永世不忘할 것임.

五. 우리 나라의 獨立宣言은 우리 民族의 赫赫한 革命의 發因이며 新天地의 開闢이니 이른바 『우리 祖國이 獨立國임과 우리 民族이 自由民임을

大韓民國綱領

— 大韓民國임시정헌수립 90주년 기획 특집 — 大韓民國건국공헌영

| 90주년 기획 특집 |

宣言하노라. 이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여 人類平等의 大意를 闡明하며 이로써 子孫萬代에 告하여 民族自存의 政權을 永有하라.』하였다. 이는 우리 民族이 三一憲典을 發動한 元氣이며 同年 四月 十一일에 十三道代表로 組織된 臨時議政院은 大韓民國을 세우고 臨時政府와 臨時憲章十條를 創造發表하였으니 이는 우리 民族의 自力으로써 異族專制를 顛覆하고 五千年君主政治의 舊殼을 破壞하고 새로운 民主制度를 建立하며 社會의 階級을 消滅하는 第一步의 着手이었다. 우리는 大衆의 吶喊으로 創造한 新國家形式의 礎石인 大韓民國을 絶對로 擁護하며 確立함에 共同 血戰할 것임.

六. 臨時政府는 十三年 四月에 對外宣言을 發表하고 三均制度의 建國原則을 闡明하였으니 이른바 『普通選舉制度를 實施하여 政權을 均하고 國有制度를 採用하여 利權을 均하고 共費教育으로써 學權을 均하며 國內外에 對하여 民族自決의 權利를 保障하여서 民族과 民族國家와 國家와의 不平等을 革除할지니 이로써 國內에 實現하면 特權階級이 곧 消亡하고 少數民族의 侵沒을 免하고 政治와 經濟와 教育權利를 高로히 하여 (註9)軒輊이 없게 하고 同族과 異族에 對하여 또한 이러한 法하다.』하였다. 이는 三均制度의 第一次宣言이니 이 制度를 發揚廣大할 것임.

七. 臨時政府는 以上에 根據하여 革命的 三均制度로써 復國과 建國을 通하여 一貫한 最高公理인 政治, 經濟, 教育의 均等과 獨立, 民主, 均治의 三種方式을 同時에 實施할 것임.

第二章 復國

一. 獨立을 宣布하고 國號를 一定히하여 行使하고 臨時政府와 臨時議政院을 세우고 臨時約法과 其他法規를 頒布하고 人民의 納稅와 兵役의 義務를 行하며 軍力과 外交와 黨務와 人心이 서로 配合하여 敵에 對한 血戰을 政府로써 維續하는 過程을 復國의 第一期라 할 것임.

二. 一部國土를 恢復하고 黨, 政, 軍의 機構가 國內에 轉奠하여 國際的 地位를 本質적으로 取得함에 充足한 條件이 成熟할 때를 復國의 第二期라 할 것임.

三. 敵의 勢力에 包圍된 國土와 俘虜된 人民과 侵占된 政治, 經濟와 抹殺된 教育과 文化等을 完全히 奪還하고 平等地位와 自由意志로써 各國政府와 條約을 締結할 때를 復國의 完成期라 할 것임.

四. 復國期에서 臨時約憲과 其他頒布한 法規에서 依하여 臨時議政院의 選舉로 組織된 國務委員會로써 復國의 公務를 執行할 것임.

五. 復國의 國家主權은 光復運動者全體가 代行할 것임.

六. 三均制度로써 民族의 革命意識을 喚起하며 海內의 民族의 革命力量을 集中하여 光復運動의 總動員을 實施하며 將校와 武裝隊伍를 統一訓練하여 相當한 兵額의 光復軍을 곳곳마다 編成하여 血戰을 強和할 것임.

七. 敵의 侵奪勢力을 撲滅함에 一切手段을 다하되 大衆의 反抗과 武裝의 鬪爭과 國際的 外交와 宣戰等의 獨立運動을 擴大強化할 것임.

八. 우리 獨立運動을 同情하고 援助하는 民族과 國家와 連絡하여 光復運動의 力量을 擴大할 것이며 敵 日本과 抗戰하는 友邦과 切實히 連絡하여 抗日同盟軍의 具體的 行動을 取할 것임.

第三章 建國

一. 敵의 一切統治機構를 國內에서 完全히 撲滅하고 國都를 奠定하고 中央政府과 中央議會의 正式活動으로 主權을 行使하며 選舉와 立法과 任官과 軍事와 外交와 經濟等에 關한 國家의 政令이 自由로 行使되어 三均制度의 綱領과 政策을 國內에 推行하기 始作하는 過程을 建國의 第一期라 함.

二. 三均制度를 骨子로 한 憲法을 實施하여 政治와 經濟와 教育의 民主的 施設로 實際上 均衡을 圖謀하며 全國의 土地와 大生産機關의 國有가 完成되고 全國學齡兒童의 全數가 高級教育의 免費修學이 完成되고 普通選舉制度가 拘束없이 完全히 實施되어 全國 各里 洞 村과 面 邑과 島 郡 府와 道の 自治組織과 行政組織과 民衆團體와 民衆組織이 完備되어 三均制度가 配合實施되고 傾向各層의 極貧階級の 物質과 精神上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이 提高保障되는 過程을 建國의 第二期라 함.

三. 建國에 關한 一切基礎的 施設, 卽軍事, 教育, 行政, 生産, 衛生, 警察, 農, 工, 商, 外交等 方面의 建設 機構와 成績이 豫定計劃의 過半이 成就될 때를 建國의 完成期라 함.

四. 建國期의 憲法上 人民의 基本權利와 義務는 左列原則에 依據하고 法律로 另定施行 함

가 勞働權, 休息權, 被救濟權, 被保險權, 免費修學權, 參政權, 選舉權, 被選舉權, 罷免權, 立法權과 社會各組織에 加入하는 權利가 있음.

나 婦女는 經濟와 國家와 文化와 社會生活上 男子와 平等權利가 있음.

다 身體自由와 居住, 言論, 著作, 出版, 信仰, 集會, 結社, 遊行示威運動, 通信秘密等이 自由가 있음

라 普通選舉에는 滿十八歲以上 男女로 選舉權을 行使하되 信仰, 教育, 居住年數, 社會出身, 財產狀況과 過去行動을 分別치 아니하며 選舉權을 가진 滿二十三歲以上의 男女는 被選舉權이 있으되 每個人의 平等과 秘密과 直接으로 함.

마 人民은 法律을 지키며 稅金을 바치며 兵役에 應하며 公務에 服하고 祖國을 建設保衛하며 社會를

| 90주년 기획 특집 |

施設支持하는 義務가 있음.

바 敵에 附和한 者와 獨立運動을 妨害한 者와 建國綱領을 反對한 者와 精神이 欠缺된 者와 犯罪判決을 받은 者는 選舉와 被選舉權이 없음.

五. 建國時期的 憲法上 中央과 地方의 政治機關은 左列한 原則에 依據함.

가 中央政府는 建國第一期에 中央에서 總選舉한 議會에서 通過한 憲法에 依據하여 組織한 國務會議의 決議로 國務를 執行하는 全國的 最高行政機關임. 行政分擔은 內, 外, 軍, 法, 財, 交通, 實業, 教育, 各부로 함.

나 地方에는 道에 道政府, 府 郡 島에 府郡政府를 두고 道에 道議會, 府 郡 島에 府 郡 島議會를 둔.

六. 建國時期的 憲法上 經濟體系는 國民各個의 均等生活을 確保함과 民族全體의 發展과 國家를 建立保衛함에 連環關係를 가지게 하되 左列한 基本原則에 依據하여 經濟政策을 推行함.

가 大生産機關의 工具와 手段을 國有로 하고 土地, 鑛山, 漁業, 農林, 水利, 沼澤과 水上, 陸上, 空中의 運輸事業과 銀行, 電信, 交通等과 大規模의 農工商企業과 城市工業區域의 共用的 主要 (註10)房產은 國有로 하고 小規模 或 中等企業은 私營으로 함.

나 敵의 侵佔 或 施設한 官, 公, 私有土地와 漁業, 鑛山, 農林, 銀行, 會社, 工場, 鐵道, 學校, 教會, 寺刹, 病院, 公園等の 房產과 基地와 其他經濟, 政治, 軍事, 文化, 教育, 宗教, 衛生에 關한 一切私有資本과 附敵者의 一切所有資本과 不動產을 沒收하여 國有로 함.

다 沒收한 財産은 貧工, 貧農과 一切無產者의 利益을 爲한 國營 或 公營의 集團生産 機關에 充公함을 原則으로 함

라 土地의 相續, 賣買, 抵押, 典讓, 遺贈, 轉租借의 禁止와 高利貸金業과 私人的 雇傭 農業의 禁止를 原則으로 하고 두레農場, 國營工場, 生産消費와 貿易의 合作機構를 組織擴大하여 農工大衆의 物質과 精神上生活程度와 文化水準을 提高함.

마 國際貿易, 電氣, (註11)自來水와 大規模의 印刷, 出版, 電映, 劇場等を 國有國營으로 함.

바 考工, 幼工, 女工의 夜間勞働과 年齡, 地帶, 時間의 不合理한 勞働을 禁止함.

사 工人과 農人의 免費醫療를 普施하여 疾病消滅과 健康保障을 勵行함.

아 土地는 自力自經人에게 分給함을 原則으로 하되 原來의 雇傭農, 自作農, 小地主農, 中地主農等 農人地位를 보아 低級으로부터 優先權을 줌.

七. 建國時期的 憲法上 教育의 基本原則은 國民各個의 科學的 智識을 普遍的으로 均等化하기 爲하여 左列한 原則에 依據하여 教育政策을 推行함.

가 教育宗旨는 三均制度로 原則을 삼아 革命公理의 民族正氣를 配合發揚하며 國民道德과 生活技能과 自治能力을 養成하여 完全한 國民을 造成함에 둌.

나 六歲부터 十二歲까지의 初等基本教育和 十二歲以上の 高等基本教育에 關한 一切費用은 國家가 負擔하고 義務로 施行함.

다 學齡이 超過되고 初等 或 高等教育을 받지 못한 人民에게 一律로 免費補習教育을 施行하고 貧寒한 子弟로 衣食을 自備하지 못하는 者는 國家에서 (註12)代供함.

라 地方의 人口, 交通, 文化, 經濟 等 情形을 따라 一定한 均衡的 比例로 教育機關을 設施하되 最低限度 每一邑, 一面에 五個小學과 二個中學 每一郡一道에 二個專門學校 每一道에 一個大學을 設置함.

마 教科書의 編輯과 印刷 發行을 國營으로 하고 學生에게 無料로 分給함.

바 國民兵과 常備兵의 基本智識에 關한 教育은 專門訓練으로 하는 以外에 每中等學校와 專門學校의 必須科目으로 함.

사 公私學校는 一律로 國家의 監督을 받고 國家의 規定한 教育政策을 遵守케 하며 韓僑의 教育에 對하여 國家로써 教育政策을 推行함.

(解註)

註1 首尾均平位=머리로부터 꼬리에 이르기까지 골고로히 함.

註2 興邦保泰平=나라를 일으키고 泰平을 保持함.

註3 弘益人間=널리 사람을 利益케 함.

註4 理化世界=眞理로 世界를 化함.

註5 遵聖祖至公分授之法=聖祖의 至極히 公平하던 分授法에 따름.

註6 革後人私有兼併之弊=後人이 兼併하는 弊端을 고침

註7 우리 同胞에게 希望하는바.

註8 그리하여 外國의 蔑侮를 막음.

註9 輕重

註10 財産

註11 上水道

註12 代身供給

※ 이 자료는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1945년 8월 15일 — 타인으로서의 타인 — 1945년 8월 15일 —

백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정수민 홍영희 인솔지 조정의 조수성
학생편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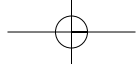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E.H 카는 말했다. 그렇다면 과거 나라의 독립을 위해, 미래를 위해 그 한 몸을 불태우셨던 선열들이 현재에도 살아계신다면, 현 시국을 어찌 보실까? 라는 궁금증으로 이 특집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호에는「독립정신」학생 편집위원들이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나 현 시국을 바라보며, 가상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임시정부의 요원들

백범 김구 선생님을 만난 건 북이 12월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철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이었다. 때가 때인지라 선생님의 넉넉한 미소 속에서도 근심이 보였다. 삼청동의 어느 전통 찻집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 인터뷰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그만큼 나눌 이야기가 많았다.

“선생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좋은 거 많이 드시나 봐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건넨 한마디에 선생님은 “허허허” 특유의 웃음으로 답변하셨다. 첫 번째 화제는 역시 남북 교류였다. 북쪽은 어제 개성공단의 민



■ 학생편집위원



정승임
이화여대 사회학과



홍용희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인솔지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



조정의
이화여대 수학교육과



조수정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간기업 활동을 빼고 개성관광 등 육로를 통한 모든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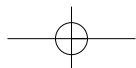
“4년 전이었다. 개성공단에서 처음으로 통일냄비가 만들어졌지. 그때 참 감격스러웠는데. 공단 사업은 쉽게 이뤄진 게 아니야. 미국 행정부가 탐탁지 않게 여겼어. 2002년에는 북핵 위기가 불거져 착공식이 늦어지기도 했고. 그래도 이젠 사업 자체를 놓고 시비를 거는 사람은 없지 않나. 개성공단은 남북에 두루 이익이 되는 상생모델로 자리 잡았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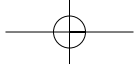
말끝을 흐리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말처럼 2005년 1490만 달러로 출발한 개성공단 생산액은 지난해 1억8477만 달러까지 늘었다. 남쪽 기업 88곳에 북쪽 노동자 3만 6천여 명이 일했다. 눈부신 성과다.

개성관광과 경의선 화물열차 운행 역시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역사가 남다르다. 선생님은 경의선이 1951년 6월에 멈춘 뒤 5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다시 연결된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경의선 열차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트럭으로 생산 물자를 운송하면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빈 차로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정색하며 말씀하셨다.

“경의선 열차 운행정지는 남북철도 단절이란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고 있다”며 직격탄을 퍼부었다. 평생 라이벌인 김영삼 전 대통령도 DJ에 대해 독설을 쏟아냈다. 정당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나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자유의 근간은 민족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개인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족의 자유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면
 부득이 개인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네.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갖고 서로 도와가는 방향이었으면 하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남북문제는 남북관계가 꼬일 때만 부각되는 것 같아. 지난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때도 그렇고 북핵 위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들이 북을 안 좋게만 보는 것 같아. 그게 참 속상하지. 그렇다고 북한 체제에 아무 모순이 없다는 건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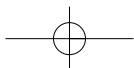
목이 탔는지 차 한 모금 마시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다.

“나의 정치이념은 한마디로 자유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자유의 근간은 민족의 자유가 아니겠는가. 개인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민족의 자유와 동시에 달성될 수 없다면 부득이 개인의 자유는 민족의 자유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네.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갖고 서로 도와가는 방향이었으면 하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새터민 이야기를 꺼냈다. 탈북주민을 일컫는 새터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건 옳지 않아. 한 민족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들도 남으로 온다고 해도 행복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래도 넘어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 믿네.”

남북관계는 상호교류가 중요한 법인데 어제(11월 24일) 북이 동시다발적으로 쏘아댄 대남조치가 너무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보여준 북의 도발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북지원은 계속 돼야 하는





▲ 철수하는 금강산 관광버스



▲ 남으로 향하는 경의선 화물열차

결까.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다.

“모름지기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전히 있는 것이어서 혈통적인 민족은 영원히 성쇠흥망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이야. 비록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이해의 충돌로 민족이 갈리어 있지만 이는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에 불과한 거지 따라서 우리 모두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을 버리고 굽주림에 고통 받는 동포들을 도와야 해. 자비와 인의, 사랑을 북의 동포들과 끊임없이 소통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국토 안에도 봄바람이 가득할 거야. 난 그렇게 믿는다고.”

마지막 질문을 끝내고 나니 밝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겼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어떡하죠. 저녁이라도 대접해야 하는 건데.....”

궁색한 몇 마디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다.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학생 회원으로서 민족의식을 갖추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악수를 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인자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멀어져가는 선생님을 보면서 “부수기는 쉬워도 쌓아가기는 어려운 게 남북관계”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㉞

| 교단에 서서 |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 개악을 바라보며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수능시험이 한 달 채 남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지도(학생식당의 줄서기 지도) 중 작년에 가르쳤던 3학년 녀석이 절 보더니 뜬금없는 물어보더군요.

“선생님! 저희가 배운 근사책(요새 아이들은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근사라고 부른다)이 좌편향 교과서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워낙에 엉뚱한 녀석인지라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떠들어대는구나” 하고는 “네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더냐?”며 반문했었죠. 그러자 그 녀석 하는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왜 하필 지금 떠들어대는 거예요?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특하면 입시 제도를 바꾸더니 이젠 교과서도 바꾸려고 그런거예요?”

아이들에겐 당장 교과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걱정인가 봅니다.

모순투성이의 역사 교과서 수정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그동안 뉴라이트의 교과서포럼, 대한상의, 국방부 등의 교과서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국사편찬위원회(이하 국편)에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검토 의뢰 전부터 현행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미리 규정지은 채 국편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국편의 '절묘한 판단'을 그야말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더군요.
그들의 기사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국편이 새로운 서술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호들갑떨면서
여기에 맞춰서 새롭게 역사교과서가 쓰여져야 한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에 검토의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국편이라는 역사학계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이루려는 뻔뻔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국편의 검토가 발표되기 이틀 전 스물한 곳의 역사학회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의 교과서 수정 시도가 검인정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불순한 행위라 지적하며 극우 세력인 뉴라이트에 의해 주도되는 역사 뒤집기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미 역사학계에서는 2004년부터 한나라당, 월간조선, 뉴라이트 등 보수와 극우 세력에 의해 진행된 교과서 헐뜯기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 세미나 등 검토를 거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현 정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무리한 시도라고 경고했었거든요.

결국, 국편은 역사학계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습니다. 국편은 교과부 산하의 국책 기관이기에 교과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방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49개항을 완곡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교과부의 250여개의 수정 항목에 대한 검토 의뢰에 대해 일일이 검토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그 49개항의 내용도 이미 국사학계에서는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특별한 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중 이승만 정부와 북한에 대해서 공과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라는 정도가 약간 눈에 띄는 것 뿐 이미 7차 교육과정 준거안의 내용을 다시금 재확인해주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보수 언론들은 이러한 국편의 '절묘한 판단'을 그야말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더군요. 그들의 기사를 보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국편이 새로운 서술 방향을 제시한 것처럼 호들갑떨면서 여기에 맞춰서 새롭게 역사교과서가 쓰여져야 한다고 떠들어 댔습니다.

문득, 드라마 대장금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장금이 생각시었을 때 미각을 가리는 경합에서 최고상궁이 "어떻게 흥시맛이라 생각하였느냐?"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어린 장금이의 대답이 무언지 기억하시나요? 어린 장금이는 최고상궁의 질문이 이상하다 생각하여 "저는 제 입에서 흥시맛이 났는데, 어찌 흥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흥시맛이 나서 흥시라 생각한 것이온데..."하면

| 교단에 서서 |

서 당황하듯 말 끝을 흐렸었죠.

저는 국편의 서술방향 제언에 대해 보인 보수언론과 뉴라이트의 행동이 마치 최고상공과 어린 장금이의 대화와 같은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건 드라마의 최고상공은 장금이의 얘길 듣고는 곧 자신의 질문이 어리석었다는 걸 알게 되지만, 보수언론과 뉴라이트들은 국편이 7차 교육과정의 준거안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질문이 어리석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 오히려 ‘거봐라! 너희가 틀렸어’ 하듯 욕박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꾸로 가는 교육청 시계

그들은 늘 이런식이었습니다. 애먼 사람들에게 ‘빨간 딱지’를 붙여 사상범으로 몰아가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결국, 교과부는 역사학계의 의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직권 수정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엔 ‘권고’를, 다음엔 ‘지시’를 내려 압박하여도 교과서 집필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결국 출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항복 선언’을 받아냅니다. 대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부산, 울산, 강원 등에서는 교육감들이 노골적으로 교과서를 교체하라고 일선 교장들을 불러 종용하더니, 그들 만족한만큼 교체되지 않으니까 교과서 신청 기일(사실 이것도 6개월전 미리 신청해야 하는 교육기본법을 어긴 변칙적인 행동입니다)을 연기하면서까지 쪼아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학교 예산 지원을 깎아버리겠다는 식으로 교장들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교과서 변경 신청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려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으면서 변경해 버렸습니다. 착잡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하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뉴라이트 등 극우세력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나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는 한국 현대사 특강에 적극 투입되어 학생들의 ‘하품’에도 굴하지 않고 식민지 시대와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4.19’를 ‘데모’라고 폄하한 영상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뉴라이트 교수인 고려대 교육학과 홍후조는 아예 신문 인터뷰에서 공공연하게 의무교육 기간의 역사교육은 국정체제로 하고, 현대사는 사회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게 맞나봅니다.

지난 10월, ‘인혁당 재건위’ 조작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4.9 통일평화재단’의 창립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상명대 주진오 교수는 독일 철학자 니체의 예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옛 것은 무조건 소중하다는 태도, 현실의 문제를 해



▲ 교과서 교체를 반대하는 교사들

결하기 위해 비판적으로 다루는 태도, 현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과거의 성취와 영광만을 기록하는 태도가 그것이다. 이 중 마지막이 수구적인 태도의 전향이며 가장 저급한 자세'라고 말하면서 현 정부와 뉴라이트의 태도가 바로 이렇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현재의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정 저들이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식민지 시대의 근대화를, 이승만의 반공을, 박정희의 독재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요? 과거를 미화하고 하나의 입장만으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역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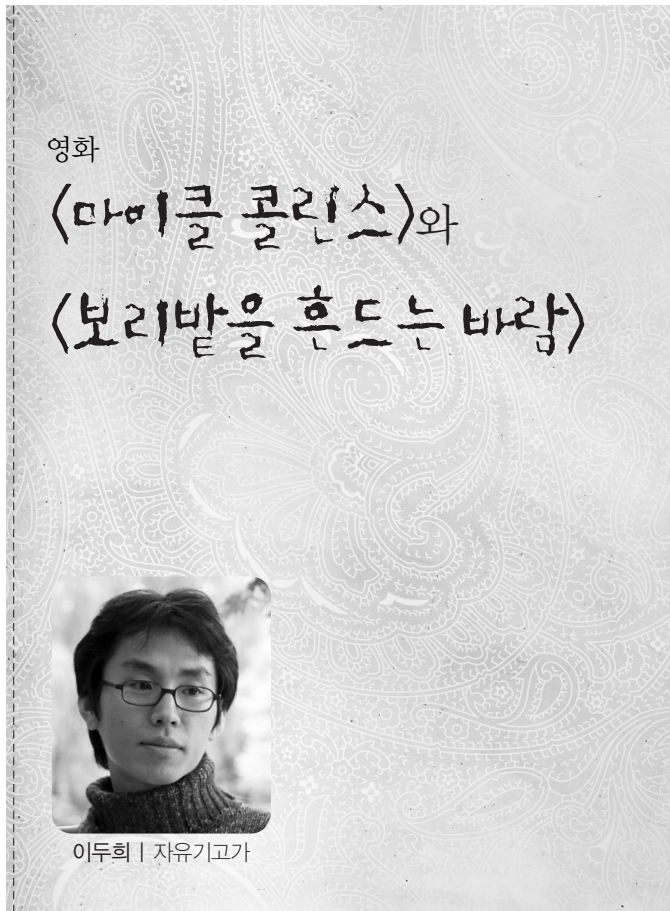
갑작스럽게 찾아온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어서인지 사람들이마다 표정들이 어두워 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니 바라보는 제 마음도 편치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경제를 살리겠다고 자신하더니 오히려 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잡으라는 경제는 안 잡고 역사 뒤집기에 매진을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마치 야구방망이 들고 낚시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야구방망이로 고기 잡기는커녕 애꿎은 강물만 내리치면서 흙탕물만 날리는 꼴이 아닌가 합니다.

어제 수능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 몇 해 동안 잠잠했던 '점수로 줄 세우기'가 다시 언론을 통해 발표되더군요. 서울대는 몇 점 대, 연고대는 몇 점 대 등등. 바야흐로 입시전쟁의 계절이 다시 다가옵니다. 대입 지원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 흙탕물처럼 혼란스런 고민만 하나 더 보태주는 건 아닌지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방과제가 되어할 교과부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허물어뜨리는 모습에 더 이상의 기대는 접어야 할 듯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나 봅니다. ☹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아일랜드의 식민지와 독립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제국주의 전성기였던 19세기. 제국 열강들의 중심이었던 유럽에는 하나의 섬나라가 그들 안의 변방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이름은 아일랜드. 사실 그들의 식민지 역사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나타났던 기원후 5세기 무렵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유럽의 초기 철기문명을 이끌었던 켈트 민족이 영국으로 이주한 앵글로 색슨 족에 밀려 영국 북부의 스코틀랜드와 바다 너머의 아일랜드로 쫓겨났을 때부터 잉글랜드의 속국으로 전락한 아일랜드의 역사가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혹 세계사를 잘 알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아더왕의 전설을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민족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수호했던 영웅. 그리고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성지 아발론으로 떠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전설 속의 기사 아더왕. 물론 아더왕은 실제 역사시대의 인물이 아닐 수 있겠지만 켈트 신화에 바탕을 둔 이 전설에는 어딘지 모르게 언젠가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을 것을 바라는 피식민지 민족의 염원이 들어있는 듯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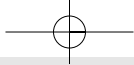
이 오랜 식민지 국가의 독립 운동이 본격화 된 것은 대기근과 함께 잉글랜드의 수탈을 겪고 나면서 민족의식이 확대된 후, 그들이 아일랜드 독립군 IRA을 창설하면서 부터일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극화한 두 편의 영화 <마이클 콜린스>(1996)와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2006)을 찾을 수 있다.

한 영웅의 승리와 비극 <마이클 콜린스>

닐 조단 감독의 영화 <마이클 콜린스>의 주인공은 그 제목처럼 실제 아일랜드의 독립 영웅인 마이클 콜린스 자신이다. 1916년 더블린 항거로 시작한 영국에 대한 군사 반란 끝에 많은 아일랜드의 민족 지도자들이 처형당했을 때, 에이몬 드 발레라가 이끄는 신페인당에서 작전 참모의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콜린스는 동지들의 탈옥과 배신자들의 숙청 그리고 영국에 대한 무력 저항을 이끌어간다. 물론 영화는 한편의 전기 영화로서 마이클 콜린스의 활약과 함께 인간적인 갈등과 사랑의 이야기를 빠트리지 않고 그려내고 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1922년 마이클 콜린스가 아일랜드 독립정부의 대표로 런던에 가서 사실상 남북 아일랜드의 분할을 인정하는 런던협약안을 가지고 온 사실일 것이다. 남부 아일랜드의 독립, 그러나 북부 아일랜드의 영국 직접 통치를 받아들이는 이 협약과 관련해서 아일랜드 독립군은 내분에 이어 내전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 영화가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비극을 한 인물의 비극적인 결말로 전개시켜나갈 수 있게 되는 발단은 바로 이 같은 사실에서 비롯할 것이다. 그는 결국 완전한 독립을 위해 그와 결별한 발레라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영화 <마이클 콜린스>가 보여주는 아일랜드의 역사는 하나의 결말이 있는 드라마로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영웅이 있었고 적과 동지들 그리고 승리와 비극을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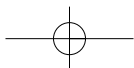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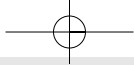
한편 켄 로치 감독의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은 같은 시대의 역사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장래가 유망했던 의학도였던 동생 데미언은 아일랜드 독립군 활동을 하는 형 테디를 따라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게 된다. 비록 그들이 마이클 콜린스와 같이 실재했던 인물들이 아니고 하더라도 그들이 나누고 겪는 대화와 사건들은 모두 아일랜드의 역사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두 형제는 런던협약 이후에 협약안을 지지하여 아일랜드 정부의 중심이 되는 아일랜드 통일당과 완전한 조국의 독립과 민주적 공화정의 이상을 쫓는 아일랜드 공화당으로서 각각이 다른 노선을 따르게 된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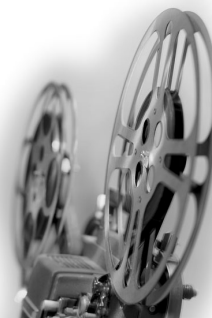
역사 앞에 던져진 형제의 비극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항상 논쟁적이고 급진적인 소재들을 자신의 주제로 삼아왔던 켄 로치 감독답게 이 영화는 바로 이 부분, 아일랜드의 독립과 분열에 대한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주목한다. 왜 남부 아일랜드의 독립 이후에도 아일랜드 공화국군 IRA는 무력 항쟁을 계속하게 되었는가를, 영화 <마이클 콜린스>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던 끝나지 않는 역사의 문제를 영화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영화 속 테디와 데미언 형제는 양립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적대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우면서도 절실하게 드러낸다. 이 영화가 되살리는 것은 한편의 드라마라기보다는 잊을 수 없





영화의 재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만일 영화가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매개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들이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역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는 논쟁의 쟁점들 하나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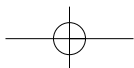
사실 이 두 편의 영화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의 터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IRA는 무장해제와 함께 자신들이 이끌었던 무력 투쟁의 노선에 대한 포기를 2004년에 선언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영화 <마이클 콜린스>의 이야기가 미리 보여준 것처럼 이제 아일랜드의 독립은 종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그렇다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에서 다시 환기시키고자 하는 식민지와 독립의 문제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는 무엇인가?

다른 저술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영화 역시 그것이 재현하는 역사란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의 재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만일 영화가 역사를 기억하는 하나의 매개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들이 없을 때 그에 상응하는 역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서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왜 아일랜드를 잃어버린 고향으로서 생각하며, 그들의 노스텔지어를 자신들의 영감으로써 다시 써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식민지의 기억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과거의 역사는 이제 종결된 것인가를 되물어볼 필요를 찾는 것이다.

참고로 아일랜드를 다루는 영화에는 가장 격렬한 1970년대 항쟁시기의 아일랜드를 보여주는 영화 폴 그린그래스 감독의 <블러디 선데이>(2002)를 역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영화들에서 아일랜드 민족 문화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감독의 <밀리언 달러 베이비>(2004)에서 주인공에게 '나의 소중한 혈육'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모쿠슈라 Mokolsha 역시 아일랜드의 민족어인 게일어라고 한다. ㉠





빨강

게,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은
 생각만 해도 등산인을 가슴 설레
 게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사시사철 산과
 함께 하겠지만, 일상사로 바쁜 사람들은 단풍이 들
 기 시작하는 이맘때쯤 겨우
 등산을 한번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점차 쌀쌀해져 가는
 날씨에 자꾸만 몸을 움츠리
 고, 막상 산행을 결심해도
 발걸음을 떼기란 좀처럼 쉽
 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지 못하고
 고 복닥거리고 있을 때, 마
 침 가을산행을 가자는 소리
 가 들려왔다. 지난 여름 러
 시아 대장정을 같이 했던,
 독립정신 답사단에서 온 반
 가운 소식이었다. 우리는 장
 장 9박 10일이란 시간을 극
 동 시베리아 대륙에서 보냈
 다.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오
 르내리며, 항일 유적지를 몸
 소 밟아 보았다. 함께 했던
 60여명의 답사단원은 잊혀
 진 선인들의 독립운동 자취를 따라가며, 그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정신이란 한
 마음은 서로에게 적지 않은 끈끈함과 이름 모를 동
 질감을 가지게 해주었다. 그래서일까? 단번에, 뒷
 등산에 오르는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북한산을

오르게 되었다.

우리는 독바위역에서 10시에 집결한 후 산행을
 시작하였다.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들과 답사 단원
 들. 따뜻한 가을 햇살만큼이
 나 반가이 인사를 하였다.
 또래 친구들에게는 팬스레
 짓궂게 장난도 치면서, 웃음
 을 건넸다. 아직도 러시아
 답사 때의 오순 도순했던 친
 밀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마
 음 맞는 이들과 함께 하는
 산행인지라 그 어느 때보다
 북한산이 정답게 다가왔다.

북한산을 등산하는 코스
 는 여러 코스가 있는데 우리
 들은 그 중에서도 죽두리봉
 과 향로봉쪽의 등산코스를
 잡았다. 코스가 무난하긴 하
 나 중간 중간에 쇠줄이 설치
 돼 있을 정도로 가파른 구간
 도 없지 않다. 하지만 계곡
 을 아래로 보면서, 스릴을
 잠깐이나마 맛보는 것도 산

행의 즐거움중 하나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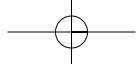
산을 밟은지 5분 만에 커다란 바위가 보이기 시
 작했다. 벌써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 송글 맺혀 있
 었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었지만 은근히 오르막과
 내리막이 적절히 섞여있어서 산 밟는 맛이 제법 느
 껴졌다.

— 독립정신산행기 —



10월, 유정이의 북한산 산행기

김유정 | 동국대학교 사학과



게다가 때마침 북한산은 단풍이 절정인 시기였다. 산길의 울긋불긋한 단풍은 가을소리를 완연하게 전달해준다. 메마른 낙엽 쌓인 길을 걸으며, 가을이 빚어내는 시간속에 잠시 마음을 맡겨본다. 오를수록 가을 꽃자리 곱게 늙은 단풍들로 오색 물결 바다가 출렁인다. 떨어진 낙엽이 그대로 쌓여 있는 땅도, 바람도, 하늘도 매우 좋았다.

때론 거칠고 가파른 길로 들어서서 이내 힘들어지곤 했지만, 신선한 공기와 함께 선선한 바람으로 거친 숨을 달래가며 걸었다. 그렇게 우리 일행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을산의 주능선을 따라 올랐다.

숨 가쁘게 오르고 나니, 즐거운 점심시간이 왔다. 힘들게 매고 온 배낭 속의 족발과 과일과 도시락들이 빛을 발할 때이다. 모두들 동글게 둘러앉고, 시원한 막걸리 한사발로 점심을 시작했다. 모두가 한식구가 되어서 흥겨움이 가득한 만찬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갑자기 짙은 빗소리가 들렸다. 바람도 점점 차가워졌다. 점점 빗줄기는 굵어져 갔다. 아이구! 어느새 구름은 자욱하게 덮여있었다. 더 큰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야 했다. 우리는 후다닥 식사를 마치고, 우중의 하산 길을 뚱뚱걸음으로 달려 내려왔

다. 급작스런 비바람의 좋지 않은 날씨로 허둥지둥 내려왔지만, 땀에 젖은 얼굴 만면에는 희색과 웃음이 여전히 가득했다. 그 기분 그대로, 우리는 곧장 내려가 삼겹살 일점에 소주 일배로 오늘의 산행은 완료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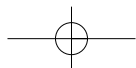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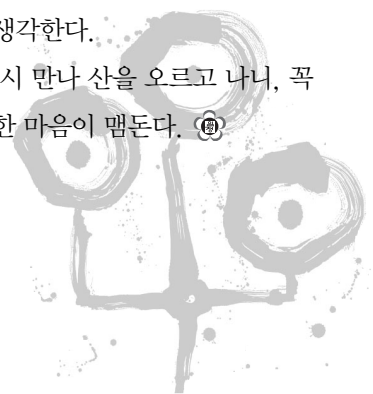
등산은 단순한 재주나 능력이 아니고 인간성의 표현이라고 한다. 우리의 산행도 체력과 산행기술을 가름하려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함께 오르면서 가파지는 호흡을 나누고, 서로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소 나누지 못한 말도 자연 속에서 살갑게 나눌 수 있다.

”

등산은 단순한 재주나 능력이 아니고 인간성의 표현이라고 한다. 우리의 산행도 체력과 산행기술을 가름하려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다. 함께 오르면서 가파지는 호흡을 나누고, 서로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소 나누지 못한 말도 자연 속에서 살갑게 나눌 수 있다.

가파른 산을 오를 때면 고행길이 따로 없다. 하지만 한계라 느껴지는 순간을 이겨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함께 무사히 마침으로써, 우리는 한층 더 성숙된 사람으로 커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만나 산을 오르고 나니, 꼭 옛 벗을 만난 듯 훈훈한 마음이 맴돈다. ☺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본회 제 9차 이사회 열려

지난 2008년 10월 30일(목) 저녁 6시 한국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본회의 아홉 번째 이사회가 열렸다. 작년 들어 처음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 4차년도(2008년) 사업보고와 회계감사 보고와 제 5차년도(2009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본회 감사직 인사에도 변동이 있었다. 지난 2년간 부임했던 이항중 감사가 임기를 마치고, 이동철 이사가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2007년부터 부임했던 김석민 감사는 2년 더 유임하는 것으로 의결 통과 됐다.

이 날 이사회에는 본회 김자동 회장을 비롯하여 이사 19명(위임장 23명)이 참석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47년 만에 진실 찾은 故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추도식



故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의 47주기 추도식이 지난해 12월 14일(일)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고인의 묘소에서 열렸다. 故 조용수 사장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처음 맞는 추도식이었다.

추도식에는 故 '조용수 사장의 동생이자 '민족일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조용준 씨를 비롯해 박석률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 상임의장, 『조용수와 민족일보』의 저자 원희복 기자, '민족일보 사건'에 함께 있었던 본회 김

자동 회장 등 50 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故 조용수 사장은 1961년 1월에 「민족일보」를 창간했으나, 남북 간의 협상과 교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21일 사형 당했다. 그로부터 47년이 지난 2008년 1월, 법원은 '故 조용수 사장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등의 과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2008년도 본회 총회 열려



지난 2008년 11월 7일(금) 본회 창립 4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가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식전행사로 한국국정방송(K-TV)에서 방영됐던 '제4기 독립정신 답사단'을 주제로 한 특별 방송을 시청했다. 본 식에서는 본회 홍보대사 이영후 선생의 사회로 작년 독립정신답사 우수 기행문에 대한 시상도 있었으며, 답사보고서 발간 보고, 독립군가 제창 등이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4차년 회계보고와 5차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임기를 마친 이항중 감사 후임으로 이동철 이사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참석했던 회원들은 식이 끝난 후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본회 창립 4주년을 축하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곽태영 부회장 별세



본회 곽태영 부회장이 작년 12월 1일(월) 향년 73세로 별세했다. 곽태영 부회장은 2004년 발기인으로 시작해 5년간 본회와 함께 해왔다.

전북 김제 출신인 고인은 평생을 일제 잔재 청산에 몸 바쳤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4·19 혁명에 참여했으며, 졸업 후부터 본격적으로 일제 잔재 청산 등 사회운동에 앞장서 왔다. 1965년 강원 양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씨를 찾아내 응징해 감옥살이를 하는 한편, 김구 선생 동상 건립 추진운동을 해오기도 했다. 2000년 11월에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설치된 고 박정희 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하고,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를 꾸려 꾸준한 운동 끝에 2004년 건립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승자 씨와 자녀 승훈·소정 씨가 있다. 장례는 사월혁명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독립정신 | 시모저모 |

북한산에서 만난 「독립정신」 산악회원



독립정신 산악회가 가을을 맞아 지난 2008년 10월 25일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산을 등반했다. 성인 회원과 학생회원들 간의 돈독한 정을 확인한 자리였다.

10월 산행은 회원 13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가 오는 날씨에서 진행됐다. 독립정신 산악회에 처음 참석한 조정의 양(독립정신 답사단 4기·이화여자대학교 1년)은 “주세영 산악회장님의 입담과 채의진 선생님의 열정적인 역사 강의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행복했던 산행을 회상했다.

독립정신은 다시 다음 달에 북한산에 모였다. 조금 늦은 단풍이 함께한 자리였다. 거의 매달 산행에 참가하고 있는 이성흠 군(독립정신 답사단 3기·경원대학교 3년)은 “답사단 동료들과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향로봉까지 가는 길은 단순한 등산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며 “2009년 산행에서도 많은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다.

다음 산행은 2009년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독립정신」 학생 답사단원 오이도 엠티



가을의 끝자락인 11월 28일~29일에 10여 명의 독립정신 3~4기 학생단원들이 오이도로 엠티를 다녀왔다. 조금 늦은 시간인 저녁 9시에 모였지만 맛있는 조개구이로 오이도만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던 엠티였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의 활동을 정리하느라 다음날 아침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엠티에 참가했던 4기 조태식 군은 “엠티에서 즐기는 게임도 물론 재미있지만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신임편집위원



김지용



신준수



신명식

2009년을 맞이해 편집위원 세 명이 새롭게 합류한다. 다음 달부터 회보 발행에 참여하는 신준수 씨는 1960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도서출판 역사넷 대표다. 김지용 씨는 경기 김포 출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만화 창작, 출판 기획을 주로 했다. 주요 저서

로는 장편소설 『보이지 않는 나라』와 『허수』 등이 있다. 신명식 씨는 내일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디지털내일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이사다. 새로운 편집위원의 합류로 회보 구성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승임 | 학생 편집위원〉

2008년도 임정 ‘송년의 밤’



지난 12월 19일(금) 본회 송년회가 종로구 정동뷔페에서 열렸다. 방송인 전유성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 80여 명이 한 데 어울려 지난 한 해를 갈무리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1부 행사는 곽태영 부회장 추도식과 함세웅 신부와 본회 김지동 회장 등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본회 대소사에 노고해 준 채의진 고문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과 더불어 ‘독립정신 4기’를 이끌어 갈 학생회원 대표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 2부와 3부에서는 식사와 함께 4기 답사단원 권호창 군이 제작한 ‘독립정신 제 4기 답사’ 영상물을 감상하고, 임시정부에 관련된 퀴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했던 진은영 양(독립정신 3기·숙명여자대학교 2년)은 “답사에서 함께 했던 언니들을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다”며 이날 송년회의 느낌을 전했다.

〈조영빈 | 학생 편집위원〉

◆ 만평



회원 여러분과 함께 엮어 가겠습니다.

독립정신은 회원·독자 여러분과 함께 엮어 가겠습니다.

독립운동·임시정부·일제만행·통일운동에 관한 글이나, 논문·시·수필을 보내주십시오.
회원·독자 여러분과 함께 엮어가는 회보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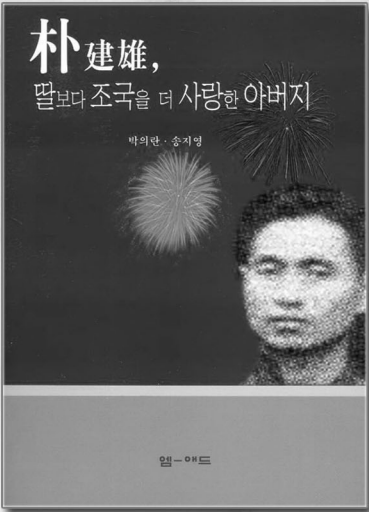
원고 매수는 A4 2~4매 이내, 필자사진(명함판) 1장,
관련 사진(있을 경우)을 본 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주소 : 서울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2호
E-mail:kpg1919@korea.com / 전화번호 : (02)3210-0411, 732-2871~2



임정서가



박건웅, 딸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 아버지

아버지,
내게는 평생 생소하고 낯선 단어다.
열 세 살 이후 아버지를 불러 볼 일이 없었다.
아버지의 이름조차 밝히는 것도 꺼린 시간도 길었다.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그 미소가 먼저 떠오른다.
큰 소리를 내고 웃는 일은 드물었지만
나를 바라보고 웃던 아버지의 그 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아버지를 이제라도 기억하고 남기려는 것은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아버지가 살다 가신 시대에
아버지처럼 민족을 위한
열정과 소신만으로 살아간
많은 분들의 뜻을 되새기기 위함이다.

-딸 박의란

해설 : 박건웅,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으로 그의 가족들은 남들처럼 한 울타리,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조국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어두웠던 우리 역사에 조금씩 서광이 비쳤던 것이다. 조국의 진정한 독립과 통일을 염원한 독립투사, 박건웅의 생애를 딸 박의란이 조명해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다.

- 여러분이 후원해 주세요 -

본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정기와 독립사상, 평화통일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본 회의 설립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분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안내 ◆

본회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정기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회비납부는 CMS 자동납부와 은행이체 방법이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MS 자동납부신청시 송금수수료 없이 처리됩니다.)

※ 회비납부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0309

우리은행 1005-700-941931

신한은행 304-01-159862

※ 기념관건립 후원금 계좌번호 (예금주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국민은행 813001-04-015151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9월회비납부자 명단(10월~12월 30일까지) ◆

| 회원명 | 10월 | 11월 | 12월 | 회원명 | 10월 | 11월 | 12월 | 회원명 | 10월 | 11월 | 12월 |
|------------|---------|---------|---------|---------|---------|---------|---------|----------|-----------|-----------|-----------|
| 새우정자동화헌장기념 | 10,000 | | 10,000 | 안영찬 | 5,000 | 5,000 | 5,000 | 조영숙 | 10,000 | 10,000 | 10,000 |
| 공성진 | 30,000 | 30,000 | 30,000 | 염기창 | 10,000 | | | 조영빈 | 20,000 | 5,000 | 5,000 |
| 곽태원 | 30,000 | | 30,000 | 염근학 | 10,000 | 10,000 | 10,000 | 조용준 | 30,000 | 30,000 | 30,000 |
| 김광재 | | 10,000 | 5,000 | 염기남 | 50,000 | 50,000 | 50,000 | 조용환 | 30,000 | 30,000 | 30,000 |
| 김동현 | 10,000 | | | 오승숙 | 10,000 | 10,000 | 10,000 | 조인형 | 10,000 | 10,000 | 10,000 |
| 김선군 | 10,000 | 10,000 | 10,000 | 오은주 | 20,000 | 20,000 | 20,000 | 조정훈 | | 60,000 | |
| 김영림 | 30,000 | 30,000 | | 오정수 | 10,000 | 10,000 | 10,000 | 조희환 | 10,000 | 10,000 | 10,000 |
| 김용덕 | 10,000 | 10,000 | 10,000 | 우상호 | 30,000 | 30,000 | 30,000 | 주세영 | 30,000 | 30,000 | 30,000 |
| 김원규 | 10,000 | 10,000 | 10,000 | 유원목 | | 20,000 | | 주철기 | 30,000 | 30,000 | 30,000 |
| 김원유 | 10,000 | 10,000 | 10,000 | 윤경자,정상무 | 30,000 | 30,000 | 30,000 | 채의진 | 10,000 | 10,000 | 10,000 |
| 김위 | 20,000 | 20,000 | 20,000 | 윤한욱 | 10,000 | 10,000 | | 최미자 | 35,000 | | |
| 김위현 | 50,000 | 50,000 | 50,000 | 이규호 | 30,000 | 30,000 | 30,000 | 최정식 | 10,000 | 10,000 | 10,000 |
| 김자등 | 100,000 | 100,000 | 100,000 | 이병윤 | 10,000 | 10,000 | 10,000 | 최민국 | 10,000 | 10,000 | 10,000 |
| 김재철 | 300,000 | 100,000 | 100,000 | 이상준 | 200,000 | 200,000 | 200,000 | 함세웅 | 30,000 | 30,000 | 30,000 |
| 김정욱 | 30,000 | 30,000 | 30,000 | 이석희 | 200,000 | 100,000 | 100,000 | 허석현 | 5,000 | | 5,000 |
| 이성배 | 10,000 | 10,000 | 10,000 | 이신재 | 30,000 | 30,000 | 30,000 | 홍순권 | 10,000 | 10,000 | 10,000 |
| 김중숙 | 10,000 | 10,000 | 10,000 | 이영춘 | 30,000 | 30,000 | 30,000 | 황용만 | 5,000 | 5,000 | 5,000 |
| 김진모 | 20,000 | 20,000 | 20,000 | 이영후 | 30,000 | 30,000 | 30,000 | 조은옥 | 30,000 | | |
| 김진영 | 10,000 | 10,000 | 10,000 | 이용규 | 10,000 | 10,000 | 10,000 | | | | 100,000 |
| 김진현 | 30,000 | 30,000 | 30,000 | 이용국 | 5,000 | 5,000 | 5,000 | 김진한 | | | 30,000 |
| 김학근 | 10,000 | 10,000 | 10,000 | 이정재 | 50,000 | 50,000 | 50,000 | 황인순 | | | 120,000 |
| 남만우 | 30,000 | 30,000 | 30,000 | 이종락 | 30,000 | 30,000 | 30,000 | | | | |
| 노시선 | 30,000 | 30,000 | 30,000 | 이지현 | 10,000 | 10,000 | | | | | |
| 노중래 | 30,000 | 30,000 | 30,000 | 이찬희 | 30,000 | 30,000 | | ◆ 기부금 | 10월 | 11월 | 12월 |
| 문재선 | 30,000 | | | 이창복 | 30,000 | 30,000 | 30,000 | (주)오토 | 6,000,000 | 6,000,000 | 6,000,000 |
| 민항선 | | 10,000 | | 이학훈 | 5,000 | 5,000 | 5,000 | | | | |
| 박두근 | 10,000 | 10,000 | 10,000 | 이항중 | 30,000 | 30,000 | 30,000 | | | | |
| 박석자 | 10,000 | 10,000 | 10,000 | 이호현 | 20,000 | 20,000 | 20,000 | | | | |
| 박원표 | 50,000 | 50,000 | 50,000 | 이화순 | 30,000 | 30,000 | 30,000 | 송년회 특별회비 | | | |
| 박은봉 | 30,000 | 30,000 | 30,000 | 인순창 | 30,000 | 30,000 | 30,000 | 전유성 | 500,000 | | |
| 박창기 | 100,000 | 100,000 | | 장봉훈 | 30,000 | 30,000 | 30,000 | 박재승 | 500,000 | | |
| 백낙청 | 10,000 | 10,000 | 10,000 | 장은기 | 20,000 | 20,000 | 20,000 | 이상준 | 1,000,000 | | |
| 성인제약(주) | 100,000 | 100,000 | 100,000 | 정동익 | 30,000 | 30,000 | 30,000 | 성인제약(주) | 500,000 | | |
| 빙안섭 | 30,000 | 30,000 | 30,000 | 정만기 | 30,000 | 30,000 | 30,000 | | | | |
| 송재용 | 30,000 | 30,000 | 30,000 | 정승임 | 5,000 | 5,000 | 5,000 | 특별회비 | | | |
| 심수진 | 30,000 | 30,000 | 30,000 | 정환기 | 10,000 | 10,000 | 10,000 | | | | |
| 심재권 | 30,000 | 30,000 | 30,000 | 조기식 | 10,000 | 10,000 | | 김자등 | 100,000 | | |

항일과 친일

명(明)과 암(暗) - 두 얼굴의 조선일보

항일



안재홍 (1891~1965)



1919년 삼일운동 만세시위를 지도하였고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의 청년외교단에 가담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부(聯統府)에서 활동하다가 3년 옥고를 치렀다.

1924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일보 주필을 거쳐 부사장, 사장을 역임했다. 이 시기 좌우합작의 민족운동조직인 신간회 간사를 맡아 '광주학생사건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주관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활동을 벌였다. 문화운동에도 관심이 깊어 1929년부터 조선일보에 '한글맞춤법강좌'를 연재하는 등 문자보급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조선일보 퇴사 후 칩거하면서 식민사관에 맞서 우리나라 상고사를 새롭게 정리한 《조선상고사감》 등을 저술하였고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수감되었다. 해방 후에 '신민족주의론'에 입각한 좌우 통합을 역설하였고 김구, 김규식과 함께 통일정부 수립운동에 앞장섰다.

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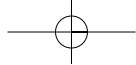
방응모 (1890~?)



1924년 금광을 개발해 재산을 모은 뒤, 1933년 운영난에 빠진 조선일보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조선일보를 인수하던 시점인 1933년 4월 일제에 31년식 기관총을 헌납하였고 그해 10월 조선신궁봉찬회 발기인(경성) 겸 고문을 맡았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와 유착·협력하면서 조선일보의 사세확장에 힘썼다. 그해 9월 제2차 전선순회시국강연반에 가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1941년 9월 임전대책협의회 채권가두 유격대로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국민총력조선연맹 참가·임전보국단 이사 등 각종 친일단체 간부를 지냈고 수많은 시국강연회에서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조선일보가 폐간된 뒤 월간지 《조광》을 확대 개편하여 1944년 12월까지 발행하면서, 《조선민족의 발전적 해소론》〈내선일체에 대한 이념〉〈대동아전과 우리의 각오〉 등 친일논설을 게재, 노골적으로 일제에 협력하였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내일의 희망을 여는 정치경제 전문일간지 _ 내일신문

내일신문은 변화와 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생활인의 힘으로 탄생시킨 정치경제 정론지입니다.
내일신문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언론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내일신문은 중앙일간지인 석간내일신문과 24개 도시별 주간내일신문을 함께 발행합니다.
내일신문은 전국지·지역지·홈페이지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 풍부한 정보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내일신문은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시대 흐름을 꿰뚫는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합니다.

지금 내일신문을 펼쳐 보세요
내일의 희망이
여러분의 안방으로
달려갑니다.



정치경제 전문일간지 석간내일신문 | 구독문의 : 02-2287-2300
인터넷으로 펼쳐 보는 e내일신문 | 홈페이지 : www.naeil.com

자매지 미즈내일·대학내일·중극망·24개 지역내일신문(강남서초·강북·송파강동광진·양천강서영등포·수원동탄태안 안산·인양군포의왕과천·성남분당용인수지
원주·춘천홍천·부천부평계양·인천·일산덕양파주김포·대전계룡연기·전북·천안아산·청주청원·광주·대구·구미·거제통영고성·마산창원진해·부산·울산경주

